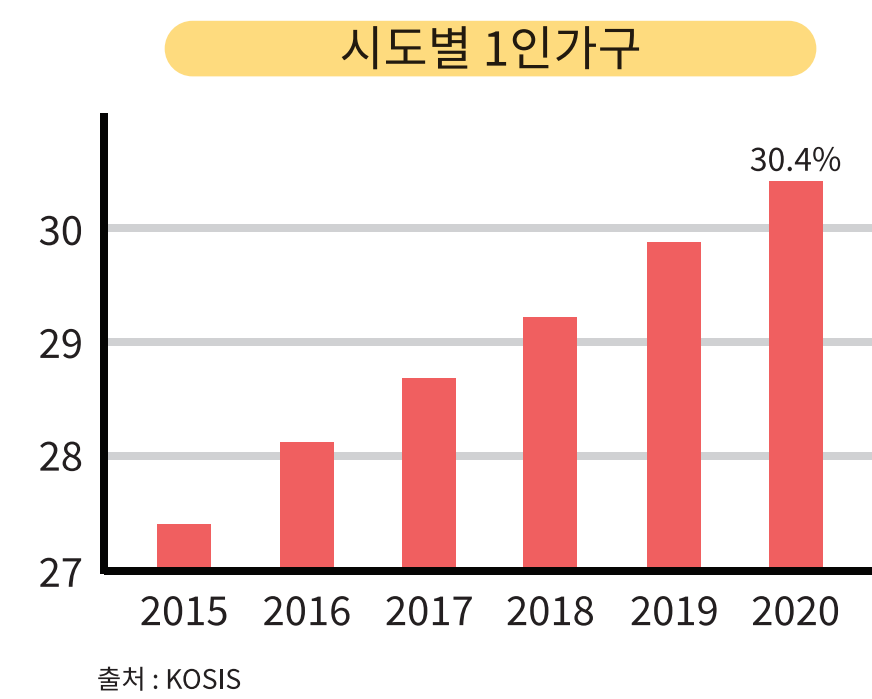


1인 가구 건강 체크 및 관리 서비스 디자인 시나리오 개발

01 선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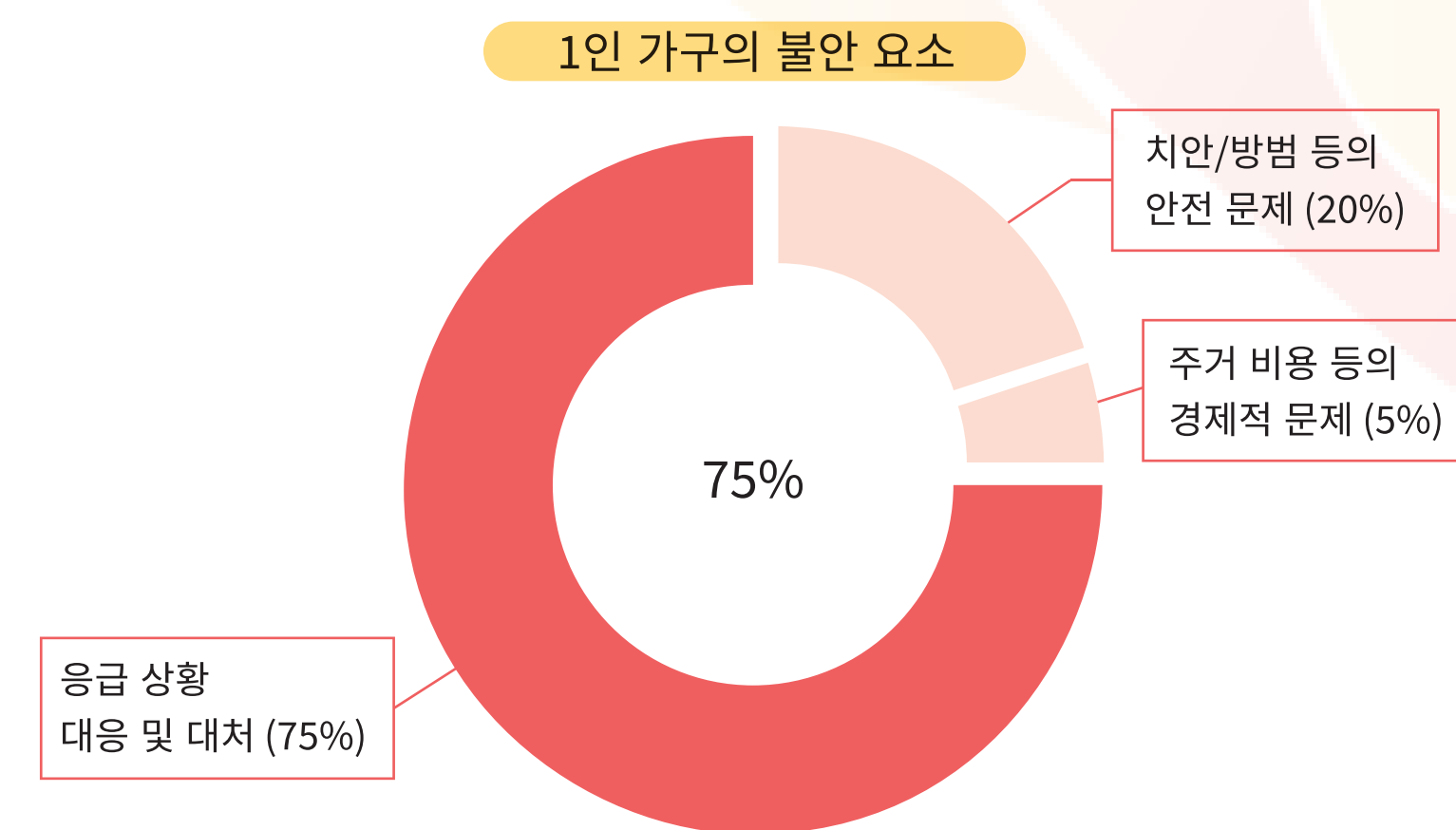


3명 중 한 명은 1인 가구라고 할 만큼 1인 가구가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중년층의 경우 보험료가 지출 순위 중 가장 높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홈트가 유행에 올랐을 만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인 가구에 지원되는 건강 관련 제도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휴대폰 앱과 같이 접근성이 좋은 대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둘이 살고 있음에도 신고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있던 만큼 1인 가구는 더욱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02 사용자 리서치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닷새간 40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0명이 응답했고, 응급 상황 시 대응 및 대처가 힘든 것을 가장 큰 불안 요소라는 답변이 15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치안/방법 등의 안전 문제가 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 또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질문한 대리 신고는 모두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03 페르소나



윤 경희 (62)



윤 수아 (26)



정 헤빈 (28)

경희 씨는 수아 씨가 독립하게 되며 작은 집으로 이사 후, 혼자 지내려 한다.

수아 씨는 어머니가 연세가 있다 보니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따로 살게 될 어머니가 건강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경희 씨는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자 한다.

헤빈 씨는 지방에서 거주하다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며 독립하게 됐다. 주변에 아는사람이 없다 보니 건강 염려증이 생겨, 불안함에 응급상황과 관련된 건강 관련 정책이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